효성, 사외이사로 박종률 사장 영입

2월28일 주주총회서 박중진씨도 선임 ... 조현택 사장은 등기임원으로

효성은 2월28일 마포구 공덕동 본사에서 제50기 주주총회를 열고 박종률, 박중진 씨를 사외이사로 새로 선임했다.

박종률씨는 SK 부사장과 유공가스 사장을 지냈으며, 박중진씨는 현재 동양종합금융증권 부회장과 한국증권업협회 비상근 부회장을 맡고 있다.

효성은 2월28일 주주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사외이사 4명 중 대우 회장을 지낸 이경훈 사외이사 등 3명을 연임시킴으로써 기존 5명의 사외이사가 6명으로 늘어났다.

이밖에 효성은 송형진 효성 건설PG장이 등기임원을 사임함에 따라 조현택 효성 스판텍스PU 사장을 등기임원으로 신규 선임했다.

한편, 효성의 이상운 대표이사 사장은 주총에서 “세계적인 타이어기업과 업무제휴를 강화해 주력사업인 타이어코드 소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2004년 구미공장 증설과 중국 광둥공장 건설에 따라 늘어난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스판텍스 세계 1위 도약을 위한 토대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05/03/02>